(사)실로암사람들, 2024~2026년 탈시설자립장애인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 성과 공유회 성황리 개최

(사)실로암사람들과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컨소시엄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탈시설자립장애인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업의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유지 서비스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순화 시의원과 문애준 시의원을 비롯, 장애인복지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관계 공무원,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순화 시의원은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애준 시의원은 "전남지역에는 이와같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이 주진되지 못한 이 아쉽다"며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과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진되고 더욱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1, 2차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주진하며 타 시·도보다 앞서 체험 홈(자립생활주택)과 탈시설 자립장애인 임대주택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다. 또한 자립 이후에도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장애인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을 운영하며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선도적 정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은 지원주거 12명, 주거유지서비스 1명, 이용 대기자 7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유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건강관리, 자립역량 강화 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탈시설자립장애인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 성과 공유회가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6 전남광주 나이스크패밀리 컨퍼런스 은혜 가운데 마쳐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회복 훈련

2026 전남광주 나이스크패밀리 컨퍼런스가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담양 바이블칼리지에서 열렸다.

Nyskc Family Conference 2026이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은혜 가운데 열렸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롬12;1-2)라는 주제로 8월 3~5일까지 2박 3일간 바이블칼리지에서 목회자와 사모, 성도들과 청년들 및 청소년 유년 어린 아이들까지 전체가 참여해 예배회복을 위한 훈련에 임했다. 참가자들은 새벽 6시 기도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낮에는 각 트랙별 강의로, 저녁에는 성회로 온종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저녁성회가 끝난 후에는 코이노니아 시간을 통해 하루에 있었던 강의와 일과를 느끼고 깨달은 것을 불른 은혜받은 것을 나누며 결단하고 기도로 마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NYSKC 신앙생활의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놀라운 변화,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는 현장이었다.

최고센 목사 NYSKC World Mission 대표회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 최기성 목사, 황 디모데 목사, 데이빗 전 목사 GTS 교수들과 동남아 본무장 조현국 목사, 광주전남본무장 윤구현목사, 대전본무장 유재이 목사 등이 강사들로 섬겼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영적 예배자였던 이베스를 롤모델로 삼아 이베스처럼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했다. 특히 교회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일재 역사의 절정이기에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NYSKC Family Conference 2027은 미국 시카고와 한국 대전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광주 YFC 청소년 여름캠프 성황리 종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소년' 주제 나주 중흥골드스파서

조교파 청소년 전문 선교단체인 광주 십대선교회(YFC· 이사장 남택륜·대표 김원식) 청소년 여름캠프가 지난 7월 29일(수) 부터 31일(금) 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소년(롬 12:1)"을 주제로 나주 중흥골드스파 & 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여름캠프 주요 일정은 개회예배, 말씀묵상 및 암송, 캠퍼스멜로디 및 특강, 스포츠 게임, 워터락 물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캠프에서는 남택륜목사(이사장)의 개회메시지, 지도자와 간사의 지도로 진행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집중강의로 참가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퀴즈, 토론 및 조별 활동 참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해와 생활 속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지도 했다.

스포츠 게임으로는 축구와 탁구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워터락에서 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소감문 시간과 평가회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다음 캠프에도 꼭 참여하겠다는 만족도를 표하기도 했다.

김원식 대표는 "이번 행사를 뜻깊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광주 YFC 이사 및 후원교회, 그리고 부모님들의 따뜻한 기도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주YFC 청소년 여름캠프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 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소년'을 주제로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열렸다.

사설

文畵 이박행 목사
미션21 주필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
건강한교회와사회포럼 상임대표
광주YMCA선교위원

광복 81주년과 교회의 과제

분단을 넘어 평화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광복 81주년을 맞았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다. '광복(光復)'은 말 그대로 빛을 회복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8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광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분단은 정전체제를 거쳐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의 강대국들이 군사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남북의 군사적 긴장 또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복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완의 광복'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광복은 단순히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국토와 주권, 헌법과 제도,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세대와 계층의 양극화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더해졌다. 폭염과 가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산사태는 이제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한 개발이 생태계의 한계를 넘어선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광복절은 교회가 민족과 역사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시 묻는 날이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신앙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서 살아내야 한다.

첫째,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 5:9)라는 말씀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더욱 절실하다. 진영과 이념의 언어를 넘어 남북의 화해와 평화, 동북아시아의 공존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증오를 확대하는 언어가 교회의 강단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생명과 신앙의 문제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선택적인 사회운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책임이다. 에너지 절약, 탄소 감축, 생태적 예배와 교육, 지역 농촌과의 연대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무너지는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시대에 교회마저 대형화와 수도권 집중의 논리를 좇는다면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작은 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살리고, 청년과 다음 세대가 지역에서 희망을 찾도록 교육·돌봄·문화·복지의 공공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가가 교회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광복 81주년,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남북이 적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나라, 자연을 소모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나라, 수도권만 번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작은 마을과 지역까지 함께 살아가는 나라여야 한다.

빛을 되찾은 지 81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빛을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교회가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 화해의 다리가 되고, 상처 입은 생명을 품으며, 무너지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미완의 광복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완성해 가는 한국교회의 시대적 소명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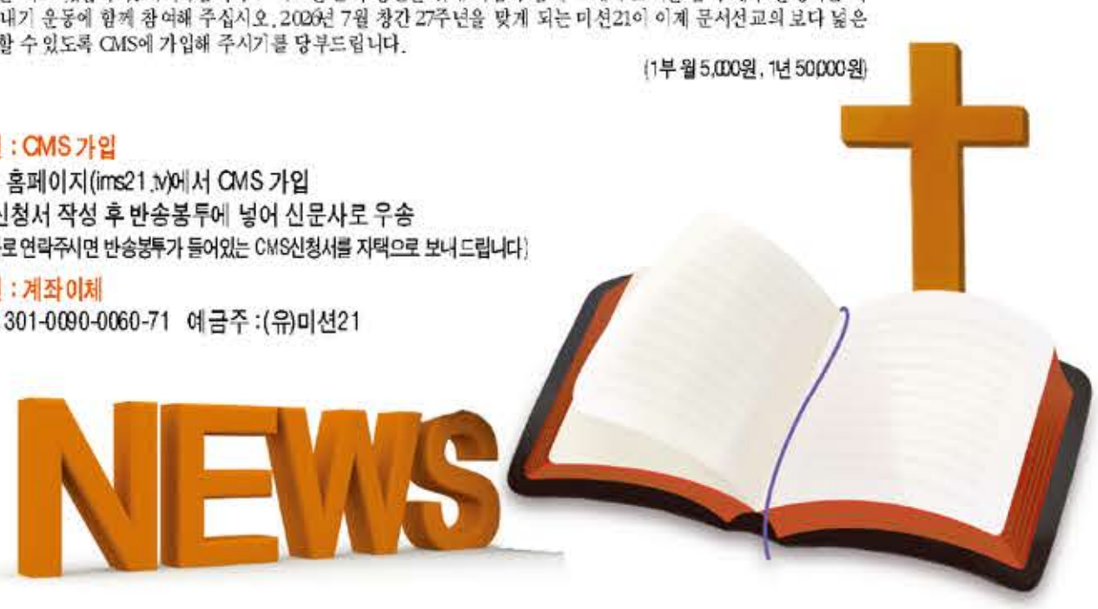
미션21 신문을 보냅시다

'밝은 크리스천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1 정기후원 :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i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자택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일시후원 : 계좌이체
- 농 협 : 301-0090-0060-71 예금주 : (유)미션21



작성하신 후 후대폰으로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C·P : 010-4602-7824 / e-mail : phi2830@nate.com

미션21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오…"
복음 담은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신청일자 :	
계 좌 정 보	
은행명 :	
예금주 :	
지정출금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	

금액(매월)	□ 5,000원	□ 기타 ( )원 ( )부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 기타 ( )일
후원기관	□ 법인	□ 기타 ( )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 또는 서명

정통 기독교 주간신문 미션21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동심빌딩 3층)
전화 : 062)367-9109, 364-9109 / 팩스 : 062)367-9108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 또는 서명